

6.10(금) 석간<인터넷 6.10(금) 06:00 이후>



보도자료(Press Release)

"안전한 일터, 건강한 근로자, 행복한 나라"

▶ 2011. 6. 9.(목) 배포
▶ 총 16 쪽

◆서비스산업재예방팀 팀장 최 현 석
사무관 최 종 수

☎ 02-6922-0961, 010-9114-558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서비스업 근로자와 사업주 전 생애에 걸쳐 "맞춤 안전·보건 지원" 추진

- 고용노동부, 서비스업 *Life-long* 안전보건 프로젝트 발표 -

▶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「연계」와 「협업」을 통해
"언제 어디서나 안전보건 의식 확산" 추진

□ 근로자의 직업생애,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예방조치가 마련된다.

○ 이를 위해 안심일터 추진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물론 직능단체 등 민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채필)는 6.10(금) 14:00 제5차 「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」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*Life-long*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.

○ 본 대책은 지난 5.31 취임한 이채필 장관이 주재하는 첫 번째 안심일터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의 향후 고용노동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다.

○ 이 장관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"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, 중앙과 지방,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게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□ 본 대책은 근로자의 직업생애,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유효한 접점에 따라 **업무연계와 협업**을 통해 필요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를 발굴·매칭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○ 즉, “**배움단계**” → “**입직·창업단계**” → “**근무·사업단계**” → “**생활 쏠 단계**”에 따라 언제, 어디서나 안전·보건의식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.

○ 그 주요 내용은,

- (**배움단계**) 예비 근로자의 **직업소개, 직업훈련**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· 이러한 내용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**요양보호사, 간병인, 청소 등**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**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**에 포함, 시행하고 있다.

- (**입직·창업단계**) 프랜차이즈업체 등 각종 **창업교육**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**사업 개시 단계**(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시)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수칙이 보급된다.

- (**근무·사업단계**) 업종을 대표하는 **직능단체**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아울러 **택배·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**를 위한 안전수칙도 개발·보급한다.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도 연내 마련된다.

- (**생활 쏠 단계**) “**서비스재해 Zero 10-10 수칙**”을 마련하고, 계절·날씨 변화에 따른 **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**을 구축하며, **맞춤형 안전보건 자료**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.

□ 고용노동부는 동 대책을 확정하고,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.

서비스업 *Life-long* 안전보건 프로젝트

-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('10.11)⁺ -

2011. 6.



고용노동부

산재예방보상정책관

차 례

I. 수립 배경	1
II.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	2
1. 배움 단계	2
2. 입직·창업 단계	4
3. 근무·사업 단계	6
4. 생활 쏠 단계	9
III. 향후 계획	11
부록: 실행계획(Action plan)	12

I. 수립 배경

- 제조·건설업 중심을 탈피하여 서비스업 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**최초의 종합대책** 수립('10.11), 전담부서 신설('11.3.2)

◇ 「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」('10.11) 주요 내용

- ① 고위험 업종에 대한 재해감소대책 추진: 안전진단, 기술지도, 감독
- ②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산재예방 네트워크 활성화: 안전⁺, 역량강화 지원
- ③ 타 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산재예방 저변 확대
- ④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 제도 적용확대·강화
- ⑤ 법 준수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

-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**세부 추진계획 (action plan)**을 마련함과 동시에, **사업내용을 보완·확장**

* 산업안전감독관 워크숍(3.18), 공단 서비스실·문화홍보실(4.8)과의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과제 추가 발굴

- 업종별 특화 형태로의 국 조직체계 개편 등 변화된 환경 및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**일 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**

- 정책의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한 **네트워킹과 협업 추진**

- (내부) 예방과 보상, 안전과 보건, 업종간, 부처내 연계는 물론 (외부) 부처간, 공공과 민간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과제 발굴

- 서비스업의 복잡다기한 특성을 감안하여 **직종 중심 접근 강화**

- 직종별 노동시장 현황(인력분포, 양성체계 등), 근무형태, 재해 발생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, **맞춤대책 마련**

- 근로자·사업주 관점에서 서비스업을 포함, **전 업종에 대하여 생애적(life-long) 유효** 접점마다 실효성 있는 **교육·홍보방안** 발굴·매칭 ⇒ **안전보건 문화·의식 확산** 추진

II.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

◇ 근로자의 직업생애,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필요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발굴·매칭, “언제, 어디서나 안전보건 의식 확산(*Ubiquitous Safety Network*)” 추진

* 정책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수단 발굴·확대

1. 배움 단계

입직·창업 단계

근무·사업 단계

생활 쏠 단계

1) 추진방향: 입직 전 배움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 의식 함양 (고용·인적자원 정책과의 연계)

-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업의 내용을 익히면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, 직종별 교육과정 중심으로 안전보건 수칙 교육 강화

2) 추진과제

□ 직업 정보 소개 시 해당 직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안전 보건상의 팁(*tip*) 병행 제공

- 한고원이 발간하는 각종 「직업소개 정보물」에 안전공단이 작성한 해당 직종별 안전수칙 삽입

- 기관간 협의(6월) 거쳐 이후 발간물부터 적용

-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홈페이지, 발간물 등에도 이를 포함토록 협조·유도(기관간 협의, 6월)

- 잡 월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, 체험장 설치 시설 등에 안전 보건 수칙이 적용되었는지 사전 확인·조치

- 시설물 설치기획 단계에 공단 참여,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

□ 기존 교육과정을 활용한 직종 특화 예방교육 실시

-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청소, 경비 등 재해다발 취약계층 위해 「내일배움카드제」 지원중(157개소 281개 과정)
 - 각 훈련기관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기 협조 요청
(금년은 자율적 권장에 따른 시범 실시, 4월 지침 시달)
 - * 교육시간을 별도 배당, 교육시작 전 또는 휴식시간에 동영상 시연 등
(공단에서 자료·강사 지원)
 - 내년부터는 직업훈련기관 모집 단계에서부터 공고시 안전 보건 교육 실시항목을 삽입, 실시토록 추진
 - 교육 강사는 안전관련 업무 경험 있는 은퇴자 등을 「안전 보건문화 서포터즈」로 공모·육성('12~), 활용(이하 같음)
- 전 업종의 직종별 전문 직업학교, 훈련기관 및 학원 등에 같은 방식으로 확산 추진
- 마이스터 고교, 전문대학, 폴리텍대학 교육 과정에 해당 직종의 안전보건 수칙 교육이 도입·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
 - * 현재 자동차 관련 고교(전문 10, 일반공업 80여개교)는 기초·공업입문 과정에서 총 8시간의 일반 안전교육 실시, 2년제 대학은 미실시중
 - 교과부, 청년 및 직업능력정책 담당 부서, 인력공단과 협의 거쳐 연내 도입방안 마련
- 관련 직종 자격증 시험 출제기준에 안전보건 항목 반영 추진
 - 담당 부서 및 관련부처 협의 거쳐 도입방안 검토
- 대학의 고위경영자과정 등에 안전경영 강좌 개설·운영
 - 우리부(고용센터)와 취업지원 협약을 맺은 대학부터 협조 추진, 우선 실시 후 확대

1) 추진방향: 입직 및 창업단계에서 안전보건 수칙이 자연스럽게 교육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(경제·고용정책과의 연계)

- 입직·창업의 다양한 접점에서 민간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

2) 추진과제

□ 창업교육시 직종 특화 예방교육 병행 실시

- 고용부 창업·창직인턴교육, 각종 프랜차이즈업체 창업교육, 자치단체 창업스쿨, 민간의 창업교육센터 등에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

- 개별업체 접촉 및 자료제공 협조, 자치단체 협조(상반기) → 공단과 기관간 MOU 체결방식으로 확산

- ※ 중기청의 창업 또는 창업 준비 소상공인 교육에 안전교육 지원 (안심일터추진본부 기 추진과제)

□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기준 준수 유도

-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설정·운영중인 매장 설치기준이 안전보건 수칙에 부합하도록 조정 유도

- * 정기적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가 바뀌므로 안전보건 설치기준 유지·보수여부를 주기적 확인가능

- 본사와 공단 공동으로 매장 표준모델 마련, 가맹점에 전파

- 개선 완료 시 “안심일터” 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 제공

- * 예) 시·도 “모범음식점” 마크 사례 벤치마크

- 주요 업체 본사와 간담회, 공단 지원방안 마련(연내)

□ 파견·용역사업에서의 안전교육 강화

- 파견·용역업체에서 직접 고용·관리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체 파견 전 직종별 안전보건 수칙 교육 실시
 - 청소, 경비 등 주요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 수칙 정보 제공
 - 상반기 중 관련 지침 시달·시행(지방관서 지도, 공단 교육지원)
- 파견업체 허가요건에 안전보건 교육 실시의무를 포함하는 방안 마련 추진
 -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법령 개정 등 실시방안 마련(연내)
- 서비스업 도급인의 사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협조·지원 의무에 대한 범위·방안 모색
 - * 최근 법개정 추진중인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치 협조지원 등 외에 추가적인 적정 사례 및 수단 검토
 - 연내 연구용역, 내년도 법령 개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

□ 사업개시 단계에서 예방조치 강화

-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시 해당 사업장에 관련 업종 안전보건 자료 보급(안전·복지공단간 협조를 거쳐 시행)
 - * 우편 정보물 발송, 인터넷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
-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영업 허가, 소방 점검 등의 단계에서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조치
 - * 음식점 창업절차: 관할구청의 영업허가증 발급시 점주는 위생교육 필증, 소방방화설비완비 증명서, 영업설비개요 등 서류 제출 → 구청 위생계에서 확인 실사 후 발급
 - 허가단계에서 해당 사업장 명단을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안전보건 수칙 안내(행안부 및 자치단체 협의 추진, 연내)
 - 업종별 매장 표준모델 및 수칙을 마련·제공하여 이행하도록 추진

1) 추진방향: 근로자 근무, 경영자 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절차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(경제·산업정책과의 연계)

- 기존의 재해예방 대책을 서비스업에 맞게 재조정하고,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 강화

2) 추진과제

□ 자발적 기업인 모임을 활용, 경영자 대상 예방교육 강화

- 지역 상공회의소, 기업인협의회, 상인협회 정기 모임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교육 실시(지방관서에서 개별 협조요청, 공단이 교육·자료제공, 연내)
- 직능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·추진(예산확보, 공모 등)
 - 직능단체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자료 게재, 소속 사업주가 수시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

※ 서비스업 직능단체별 직무교육에 안전보건 교육과정 반영
(안심일터추진본부 기 추진과제)

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교육 지원

- 택배,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미용사 등 소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 마련·제공
 - 종사자 수칙 마련·보급(연내), 실태조사 및 유관부처간 협업 방안 강구
- 특고대책,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주 협회의 책무범위 및 적용방안 검토

□ 안전보건 정보·서비스 제공 강화

- 민방위훈련, 자치단체 주관 교육 등 사업주·근로자가 다수 모이는 유효접점을 발굴, 재해사례 및 수칙정보 제공
 - 지방관서와 자치단체간 협조 체제 구축, 공단 및 서포터즈 교육·자료제공(연내)
-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보건 법령·실무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웹서비스 구축
 - 5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중·세분류 업종 중 20개 재해다발 및 근로자수 상위 업종에 대해 '14년까지 구축
- 유해 위험기계·기구·설비 QR코드 로드맵을 구축하고, “위험예지훈련” 등 활용성이 높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·보급
- 건강관리 가이드 제작·보급
 - 장시간 근로 등 과중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가이드 개발(9월까지 연구용역, 연내 개발)
 -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종 및 건강행태별 건강관리 가이드 14종 개발(연내)

□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처 강화

-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집체교육 실시
 - * '10년도 검찰합동점검(약 5천개소) 결과 ‘입소문 효과’ 확인
(재해발생, 교육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등을 감독에 포함)
- 사법처리, 업종별 중점지도, 재해사례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관용 매뉴얼 마련(6월초)

- 사업주용 체크리스트 마련, 직능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감독내용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안내, 자율개선 유도

* 매뉴얼,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향후 법제화 항목 검토

○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

* 사업주·근로자의 교육효과가 가장 큰 시점은 재해발생 시점

- 산재 발생 후 공단의 재해조사 단계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
- 복지공단으로부터 리스트를 넘겨받아 안전공단이 우선 실시 하되(공단간 협조), 이를 정식 절차화 하는 방안 검토(연내)

○ 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에서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당 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고려하도록 유도

- 위탁 결정시 위탁업체의 재해율, 중대재해 발생 유무, 안전 경영체제 구축 여부 등을 확인·판단하도록 조치
- 행안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 검토(연내)

□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

○ 현행 클린사업을 서비스업에 맞춰 업종별 표준매장 모델을 설정, 사업주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 후 개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

* 소규모 서비스업은 장소 임대로 인해 시설개선 어려움 → 미끄럼 방지장화, 논슬립 설치 등 소규모 장비보급, 위험요인 제거에 중점

- 지원 사업장에 “안심일터” 인증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 제공
- 내년도 본격 추진을 목표로 금년도 가용예산 확인·시행

1. 추진방향: 법 준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

2. 추진과제

□ 안전보건 수칙 개발·보급

○ 10대 재해발생 직종에 대한 열 가지 수칙 정보인 「서비스 재해 Zero 10-10」 마련·보급(상반기)

- 식당종사자, 청소작업자 등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의 10개 직종별로 지켜야 할 10대 수칙을 망라, 자료제작·보급

○ 계절 및 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·보급(~'13년까지)

- 산업재해 위험지수 개발 및 모델링 연구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, 위젯 등으로 구현

* 타 사례: 산불위험지수, 보건기상지수, 꽃가루지수 위젯 등

○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 보급·홍보

○ 수요자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 개발 및 보급

- 업종·직종, 근로자·사업주용, 제공기관(직업훈련기관, 직능단체, 자치단체 등), 홍보매체 등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교육·홍보 자료 개발

* one-page 형태의 핵심내용 위주로 담아 교육 효과 제고

* 동영상, 스마트폰 앱 등 전달효과 높은 방식 개발 병행

- 기존 콘텐츠 전체에 대한 분석·진단을 거쳐 보완·활용하면서 신규 콘텐츠도 지속 개발

□ 집중 매체를 활용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

○ 휴머니즘에 기반한 “조심조심 코리아”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 홍보를 확산

- 안전의식에 있어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것은 “가족” + “근로자 라이프스타일”에 맞춘 매체·미디어 배치

- ‘입소문’을 유발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공익성 캠페인 제작

- 시·청취율 높은 방송매체 위주 홍보, 효과성 낮은 매체 지양

○ 방송매체, SNS를 활용한 간접 홍보 활성화

- 방송작가 대상 자료제공·설명을 통해 프로그램에서의 안전보건 수칙 노출가능성을 높임

○ 해당 직종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(기능한국인, 산재예방달인 등 포함)를 섭외하여 이들을 통한 안전보건 수칙 확산

* 예) “7성급 셰프 에드워드 권이 전하는 7성급 안전수칙”

- 직종별 유명 인사 발굴 → 이들이 직접 말하는 안전수칙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메시지화하여 전파

○ 소설가 등을 섭외, 안심일터를 방문한 체험·소감 전파

- 적정 소설가 섭외·활동지원(7월) → 활동내용을 소설가 본인 SNS로 전파하여 인터넷을 통한 ‘입소문’ 확산

Ⅲ. 향후 계획

□ 본 프로젝트(안) 보고 후 즉시 사업 추진

○ 프로젝트(안) 발표·홍보

- 안심일터 추진본부(제5차 정기회의) 시 발표

○ 부내·외 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,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여 내년도 이후 필요한 예산 반영

- 필요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함께 협업(TF 구성) 추진
- 부처간 협의시 안심일터 추진본부 회의체를 통한 협조 강화

○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주재로 매월말 사업 진행상황 평가·점검

- 우리부 담당부서장, 안전·복지공단 임원 등으로 구성

□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다 스몰딜(small-deal) 홍보 강화

○ 단위과제 추진과정에서 유의미한 성과 및 개선점이 도출될 경우 홍보

- 보도자료 배포, 캠페인, 설명회, SNS 전파 등 다양한 방법을
적용하여 노출 향상
- 협업기관과의 공동 홍보를 통한 참여자 및 국민의 관심 증진

<참고>

단위과제별 추진일정

1. 배움단계

1-1. 직업소개 발간물에 안전보건 수칙 제공	협의(6월), 즉시 시행
1-2. 잡 월드 직업체험시설물에 안전보건 수칙 적용	즉시 협의, 확인·조치(연중)
1-3.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	시행중, 내년 공모시 반영
1-4. 안전보건문화 서포터즈 육성	계획수립(하), '12년 예산반영
1-5. 전문 직업학교, 훈련기관, 학원을 통한 교육 실시	실태파악(상), 협조추진(하)
1-6. 마이스터고, 전문대, 폴리텍대를 통한 교육 실시	기관협의(연중)
1-7. 자격증 시험 출제기준에 안전보건 항목 반영·확대	TF구성(6월), 방안마련(하)
1-8. 대학 고위경영자 과정에 안전경영 강좌 개설·운영	협의 후 실시(하)

2. 입직·창업단계

2-1. 민간, 자치단체 주관 창업교육에 안전교육 실시	간담회(8월), 협의(하), 실시('12)
2-2.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 유도	협의(8월), 모델개발·적용(하)
2-3. 파견·용역 사업에서의 안전교육 강화	협의(하), 법령안검토(하)
2-4.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안전보건 관련규정 적용 확대	연구용역 후 방안마련(하)
2-5. 사업개시 단계에서 예방조치 강화	시스템구축, 자치단체 협의(하)

3. 근무·사업단계

3-1. 자발적 기업인 모임을 활용한 예방교육 강화	협의·실시(하)
3-2. 직능단체 안전보건 공모사업 지원	방안마련(6월), '12년 예산반영
3-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지원	수칙제작(9월), 공동캠페인(하)
3-4. 자치단체와 연계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	협의(6월), 실시(하)
3-5.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웹서비스 구축	'14년까지 20종 연차개발
3-6. 스마트폰 환경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	기본설계('11), 본격개발('12)
3-7. 건강관리 가이드 제작·보급	개발·보급('11)
3-8. 재해발생 사업장 대처 강화	매뉴얼 개발(6월), 감독(하)
3-9.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	방안마련(하), 법령개정('12)
3-10. 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활동 고려	협의, 지침시달(하)
3-11.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도, 컨설팅 지원	방안마련(하), 모델개발(하)

4. 생활·안전단계

4-1. 서비스 재해 zero 10-10 마련·보급	개발(7월)
4-2.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·보급	'13년까지 연차개발
4-3.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 보급	개발('11), 추가개발('12)
4-4. 수요자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 개발 및 보급	기존자료 점검(5월), 연중실시
4-5. 집중매체를 활용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	'12 계획마련(상), 홍보(연중)
4-6. 셀러브리티 홍보 추진	계획수립(6월), 연중실시